

벼랑끝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 ㉠ 법적지위 시급

강의 절반 담당... 교원 신분보장을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전국적으로 9차례나 된다.

국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는 대략 7만2000명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강의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간강사는 1500명.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강의료는 시간당 2만~5만원 수준이다. 전경이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년 이하의 강사들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비용절감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임 교원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임금으로 대학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료는 국립대인 전남대가 5만4000원인데 비해 지역 사립대는 2만5000원 내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의료 현실 맞게 인상 교수 채용 투명성 확보

시간강사들의 교원 신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간강사들은 1977년 고등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교원의 범주에서 제외됐다. 강사들의 교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이다.

각 대학마다 전임교원 충원율을 올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지역 사립대 태반이 전임교원 충원율 5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은 대학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전임교원 확충과 강의료 인상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 확보를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3년전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정치권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교수 채용 제도를 정착시켜 시간강사에 대한 부당처사를 줄여야 한다.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교수 임용 과정 때문에 급품제공 의혹이 근절되지 않고, '주종관계'나 다툼없는 전임교원과의 관계설정 때문에 일부 시간강사들이 연구보다는 처세에 치중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학과 단위로 진행되는 전임 교원 공채를 초기 단계부터 대학 본부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태분회 정재호 분회장은 "시간강사들의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 지위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현실적인 수준의 강의료 지급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효기자 kimho@kwangju.co.kr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조례

私교육 표 의식 심의 보류

현 교육위 임기 넘기면 무산

서울을 제외한 광주·전남 등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는 점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표류 끝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가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잇따라 보류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 209회 임시회에서 도 교육청이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삼았던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 의결 여부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광주시교육위원회도 개정안 여부를 연기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는 각 시·도 교육위의 '학원업계 눈치보기'의 결과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상태여서 이해당사자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심의 보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에서도 9개 선거구(광주 4, 전남 5)에 각 1명과 6명 등 모두 7명이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광주·전남의 학원 규제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 과외 교습사 1944명 등 7196곳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에 이른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시·도 교육위원들이 7월1일부터 자동 퇴직하는 만큼 주요시안을 처리할 시간이 6월로 한정된다는 것도 문제를 무기한 연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9분 해질 19시 42분 달돋이 23시 40분 달질 09시 52분

투표하고 나들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은구름	15/26℃
목포	맑은구름	13/22℃
여수	맑은구름	15/21℃
완도	맑은구름	13/24℃
구례	차차흐림	12/27℃
애남	맑은구름	12/25℃
장흥	차차흐림	12/25℃
고흥	맑은구름	12/24℃
순천	맑은구름	14/25℃
영광	맑은구름	13/24℃
진도	맑은구름	12/24℃
전주	맑은구름	13/26℃
남원	차차흐림	12/26℃
옥산도	맑은구름	12/19℃

지역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높음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높음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높음	주의	낮음

지역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목포 05:31	10:5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17:22	22:4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여수 00:07	06: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12:03	18:04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5/27	15/28	16/29	16/29	16/29	17/28

광주시 1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4일 상공회의소서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 15회 환경의 날(5일)을 맞아 오는 4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상공회의소에서 '녹색에너지! 녹색선진국!'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관련 산업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이원교 전남대 교수가 환경보전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24명에게 환경부장관·광주시장·영

산강유역환경청장표창이 수여된다.

환경의 날은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1996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올해로 15회째를 맞고 있다.

3일에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세미나가 광주 서구 NGO센터에서 '기후변화의 대응방안과 저탄소 녹색성장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환경실천캠페인 및 해안변 정화활동 등 다양한 환경보전 행사가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롬살롱 등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미발급 신고자 포상금

그동안 소득 탈루의 대명사로 인식돼왔던 롬살롱·단란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 노무사 등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다음달 1일부터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산후조리원·노무사·유흥주점 등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 처리,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만여곳(노무사 700, 산후조리원 300, 유흥주점업 3만9000곳)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흥주점업에는 롬살롱·단란주점·카바레·스탠드바·나이트클럽·관광음식점·요정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다문화가정 무료 치과진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와 조선대 치과병원(원장 황호길)은 1일 조선대 치과병원에서 ‘농촌고령자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농협은 5000만원을 지원, 700명에게 무료 치과진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슬로시티 송도

엘도라도리조트

시니어스 새일은행: 5월 31일부터 (최신형 권리버스)

ST101 15,000원 / ST102 18,000원

ST103 104,000원 / ST104 153,000원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발사시간 : 2010.06.10 09:00 - 09:05

발사장소 : 나로우주센터

발사목적 :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발사시간 : 2010.06.10 09:00 - 09:05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